

2006년

4월 1일

제 48호

KBS

社友會報

2006년 社友會 目標

- 조직사업의 내실화
- 지회조직의 활성화
- 신규사업 조기 정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733-2189, 732-8159 / 팩스 (02)3210-1449



6월 홈커밍데이 제의 -鄭사장- KBS 초청 간담회 열려

정연주 KBS 사장은 3월 29일 낮 사우회 회장단을 오찬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사장은 사우회와 KBS의 대화의 광장, 그리고 사우회 회원들의 홈커밍데이를 제의하는 등 KBS와 사우회의

지원과 협력 등을 논의했다. KBS측에서 정연주 사장을 비롯하여 김홍 부사장과 황인덕 경영본부장이, 그리고 사우회측에서 서병주회장 등 회장단과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세미나실 이전

사우회는 경운동 사무실의 공간을 재배치하고 세미나실을 KBS연구동 4동 107호실로 이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무실 환경 개선과 상설 회의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며 이틀간의 공사 이전을 마치고 3월 22일부터 사무실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새 세미나실은 전과 같이 15평의 넓이이며 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회의 탁자, 의자 및 사무집기를 보완했다.

경운동 사무실은 회원활동 위주의 공간배치로 탈바꿈되고 참고시설을 확보했다.



회보 광고주협의회 개최

KBS사우회 회장단과 회보 지원 광고주들은 3월 10일 낮 광고주협의회를 갖고 사우회 회보제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자리에는 오태수 KBS시청자 센터장, 이병순 KBS비즈니스사장, 정태진 KBS미디어사

회무규정 대폭 개정키로

사우회는 회무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문서관리 규정 및 예산회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무규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규정개정소위원회는 3월 24일 회무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명칭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회장유고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리고 지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했다. 회장·부회장은 비상근 무모수 명예직원으로 하고 임직원의 출장비를 실비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그리고 예산회계조항을 신설 분기별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하고 1000만원이상의 공사 및 500만원 이상의 구매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알림

'06 상반기 친목활동

상반기의 각 친목활동은 사우회 창립일제정 첫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창립기념품과 상품을 준비하는 등 풍성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사오니 회원들은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 낚시

- 일시: 4월 20일 (목)
오전 6시30분
- 장소: 강화 내가 저수지
- 출발장소: 경운동 사무실앞

◆ 등산

- 일시: 5월 26일 (금)
오전 11시
- 장소: 북한산(구기분소앞 집결)

◆ 바둑

- 일시: 5월 30일 (화)
오전 11시
- 장소: 추후 통보

◆ 탐석, 문화재 탐방

- 일시: 6월 2일 (금)
오전 8시
- 장소: 추후 통보
- 출발장소: 경운동 사무실앞

※ 사진·서화 활동일정은 계획 확정 후 별도 통보키로 함

KBS사우회 회장 서병주

회비내신분

- 1999년~2002년 / 윤치호
- 2003년~2004년 / 조근제 윤치호
- 2005년 / 정희준 조근제 윤치호 윤재홍
- 2006년

김대영	김금등	김진평	김기석	권중훈	권오범	김송원
고영창	김인홍	구양술	강명수	김종한	김수일	김찬송
계원준	김호영	김태인	김정훈	김덕조	김지영	김갑동
권인수	김삼목	김영호	김월화	김현수	김종면	김기준
남승욱	문명웅	류기현	박영길	박길재	박문수	배선용
박일평	배석진	박명수	서길용	신정호	서정원	손소진
신세균	심경섭	심광식	이대형	이승의	우정구	윤태룡
우달수	이근우	여용식	오수복	이송우	이광옥	원예중
이영운	임춘규	왕경태	오계환	임동섭	윤치호	윤재홍
유인동	이창섭	이석형	이흥주	유병태	이철호	이건호
이영희	이창훈	이용수	윤광선	예장기	이윤희	이내수
이 휘	임재진	이후재	유병학	이현직	이현명	유종일
우재근	이인관	장명남	조경남	조근제	조대제	정상현
전영호	지진웅	전의섭	정일화	정승배	정재권	차효석
최영차	최규열	최정웅	최순용	천영환	황철이	한상철
한규현	한진식	한상근				

- 2007년 / 오계환

2월 26일 ~ 3월 25일 <회비납부일지순>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 ◆E-mail : kbssau@yahoo.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신한과 조흥이 하나 되어
더욱 크고 새로워진 신한은행

통합 신한은행이 전국 950개 네트워크를 갖추고 대한민국 금융을 지키는 큰나무가 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금융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한민국 대표은행이라는 자부심으로 더 노력하는 THE Bank 신한은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자부심
THE Bank 신한은행

[THE Bank, 신한은행] THE City하면 뉴욕을 생각하고 THE Tower하면 애플탑을 말하듯, 고객 누구나 [은행]이면, 신한은행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한민국 대표은행으로서 통합 신한은행의 의지를 담고 있는 New 슬로건입니다.

문화산책-⑧



이인홍

국회의원이 술자리에 서 여성에게 성추행한 것이 엄청난 정치문제가 되어 신문 방송이

연일 야단이다. 세태는 확실히 달라졌다. 필자가 간행물윤리위원장으로 있을 때 어떤 교수의 외설 때문에 곤욕을 치렀으나 그때는 요즘보다 훨씬 감각이 둔했던 것 같다. 입맛과 수컷이 한 몸에 있는 꽃의 신세가 부럽다고 시를 읊어 낼 정도로 쾌락적 섹스를 선행하는 사람인데도 그에 대한 제재에는 반대가 많았다.

섹스문제는 공동체의 풍습과 개인의 품성, 그리고 사회의 규범이 예민하게 교차하는 인간과 인간집단의 골치거리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이론을 빌리자면 섹스 자체가 악에 속하거나 규범을 벗어는 것이 아니지만 과도한 행동을 촉발하는 에너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공포와 법률과 언론이라는 세 가지 방편으로 그것을 억제하는 도덕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과

규범의 성과는 개인의 윤리를 통해 표시된다. 법률과 규범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도덕과 윤리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수컷이 '뽕행'이라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자기를 교도하고 통제하는 윤리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

고 말았다. 형조판서 김노진(金魯鎭)의 문집인 추관지(秋官志)를 보면 첩을 얻은 김모가 본처의 간부를 척살하였으며, 본처를 두고 재취를 하려던 高모는 여자의 부모 반대로 실패하자 겁탈을 감행하다가 살해되었다. 그리고 동래부사는 高모의 알선으로 왜관에 몰래 들어

고대인이 암벽에 음각으로 그려 놓은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수많은 동물들이 교미하는 장면과 성기를 노출한 사람들이 서있는 것을 그린 그림이 보존되고 있다. 중국의 사서인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도 고구려 사람들이 수혈(隧穴)이라는 큰 굴에서 나무로 만든 수신(隧神)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우리 삼국유사에도 여근곡(女根谷)에 숨어있던 백제 군사 500명이 몰살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고대인의 신앙이요, 동이전의 수신은 남성성기 신앙이며, 백제군이 몰살한 여근곡은 여성성기 신앙의 상징이다. 지금도 서울 서대문 안산에는 높이 2m되는 남근바위가 있고 인왕산 국사당에는 선바위가, 노원구 불암산에는 말바위가, 관악산에는 불암바위가 성기의 성신(性神)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요리도 못 가리며 번개 같이 스쳐가는 쾌락을 좇아다니는 남성들에게 '여사당 패 자탄가(自歎歌)'의 피맛한 한 구절을 들려줄까 한다.

"...이내 손은 문고리인가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네/이내 입은 술잔인가 이놈도 빨고 저놈도 빼네/이내 배는 나룻배인가 이놈도 타고 저놈도 타네"

(본회 고문, KBS 사장·문화공보부 장관 역임)

남자의 性文化와 여자의 性文化

녀에는 차이가 있다. 남자가 능동적이지만 여자는 수동적이다. 문제의 소지가 남자에게 더 많다는 뜻이다.

한국의 남자들은 옛날부터 여자를 쾌락의 노리개감으로 해 왔다. 신라에는 창녀와 기방이 있었고 고려 때는 관아 노비가 기생이 되었다. 충열왕과 충숙왕은 기생과의 애무로 소일했고 우왕은 음행에 빠졌다. 정승들도 덩달아서 첩질하는 것을 위세로 삼았다. 이런 환락의 풍조는 좀체 퇴조하지 않았다. 조선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해져 임금이 기생 데리고 노는 것이 상사가 되었다. 세종 때는 변방을 수비하는 장사들을 위로한다고 60명이 넘는 기생을 상주시켰다. 나중에는 관원은 물론 외국 사신까지도 기생을 상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남자들의 성해방 구역'이 되어 남녀차별은 극에 도달하

가, 일본인 5명과 통정한 徐모 여인과 高모를 첩포하여 처형했다. 지방에서는 수령의 노비를 강간하는 사건도 그치지 않았다.

중종38년(1543)부터 숙종24년(1698)까지 155년간의 교령을 수록한 수교집록(受教輯錄)에도 성범죄가 즐을 잇는다. 시신과 간음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내금위의 아내들이 역자(易者)와 화간하고, 나인과 외인이 통간하고, 양반집의 처녀들이 노상에서 겁탈 당하고, 여주인이라는 자가 여종의 남편과 통간하고, 양반들이 근친상간하는 등 성범죄가 판을 쳤다. 대책이란 뻔했다. 모두 참형이라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性)은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다. 인류는 고대로 이것을 공경해 왔다. 우리 선조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울산지역에 살았던

회원여러분은 지금...

동정

- ◆ 김남규 / 전북문화해설사협회장으로 회원 43명을 인솔하고 일본 대미도의 조선통신사일을 2월 26~28일 답사
- ◆ 김선기 / 3월 26,27 이틀간 서울대 병원에서 하정맥 수술을 마치고 통원치료 중
- ◆ 김은구 / 부부동반으로 3월 10일~19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지중해지역 고대 문화 탐방
- ◆ 김재익 / 가전 가구 사무실 중고용품을 취급하는 250여평 규모의 중고 센터 매장을 작년에 감사구 등촌동에 개업, 성업 중 02) 3661-8272, 019-291-4814
- ◆ 박종길 / 3월10일 서초동 법원앞 한식집에서 이정석 전 대한언론인회장 등 언론계 선후배 9인과 함께 박회수가 운영중인 양로원 '참사랑 노인의 집'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
- ◆ 이 휘 / 장년·노년 체육 시설 둘러보기 위해 5박 6일 태국 방문. 연초에 영등포구 당산동 노인회 회장 추대
- ◆ 전세권 / 4월 19일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의 공연을 앞두고 핵소재 풍자극 '내 사랑 히바쿠사'의 연기

- ◆ 조봉균 / 3월 2일 문공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 ◆ 김수부 / 아들(3/11)
- ◆ 김광일(기출) / 아들(3/19)
- ◆ 우제탁 / 아들(3/25)
- ◆ 임영용 / 딸(3/25)
- ◆ 최상태 / 아들(3/25)
- ◆ 이청수 / 딸(3/31)
- ◆ 진동열 / 아들(4/8) 낮1시 춘천 두산리조트
- ◆ 고수용 / 딸(4/9) 낮 1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구 아미가호텔)
- ◆ 전영호 / 아들(4/22) 오전11시 강남문화센터

산수

- ◆ 조오제 / 3월 6일
- ◆ 최중호 / 3월 13일
- ◆ 김덕조 / 3월 28일

고희

- ◆ 채연식 / 3월 3일
- ◆ 손소진 / 3월 8일
- ◆ 김현수 / 3월 31일

부음

- ◆ 최홍목 / 모친상(3/4)

- ◆ 지중학 / 상 배(3/15)
- ◆ 이정복 / 모친상(3/19)

별세회원



◆ 유락문 회우가 3월 26일 8개월여의 투병끝에 별세했다. 향년74세 유족은 미망인과 2남1녀이며

장남 유용도군은 KBS 보도기술택으로 근무중이다. 고인은 74년~85년까지 11년간 공사 총무부에 근무했다.

단신

음악교실 개설 회원모집 연행행사 일정확정

사우회는 합창반과 감상반으로 구성하는 '음악교실'을 개설하기로 하고 4월 1~20일회원 모집에 들어갔다.

방송문화사업위원회는 3월 24일 이같이 결정하고 합창반은 매주 금요일, 감상반은 매월 제4주 금요일 11C 1층 어린이합창단실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 ▲ 합창 출연 6월1일=사우회 창립기념일
- ▲ 행사 출연 12월=송년의 밤 행사 출연
- ▲ 음악행사 - 음악치유행(4/28)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이석형 / 525-804,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061-320-3100) 전남 함평군수 061-320-3201
- 서길용 / 500-170, 광주 북구 운암동 금호 5-1004 (062-328-3909, 011-644-3900) 광주총국 무등산TV 062-264-5997
- 강중환 / 506-302,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철관린7차 4 705-103 (062-971-6195,011-644-6195)
- 이내수 / 122-847, 서울 은평구 불광1동 8-277 삼협빌라 202 효산서원 (031-265-5921,019-309-5910)전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043-840-3445 leenns@hanmail.net
- 강태인 / 158-755, 서울 양천구 목 5동 목동 523-504 (02-2647-1883, 011-898-4096) kangtae@kbs.co.kr
- 김수일 / 502-859, 광주 서구 삼촌동 1319(3층) 062-373-5818
- 박길재 / 500-110, 광주 북구 문흥동 919 대주 101-311 (062-417-5198, 011-604-9666)
- 이윤희 / 137-907, 서울 서초구 잠원동 66 반포한양 3-701 (02-596-4915)
- 정재권 / 550-020, 전남 여수시 공화동 1323 (061-662-8626,019-623-7002) hanlyol23@hanmail.net
- 김영호 / 122-845, 서울 은평구 대조동 231 삼성타운 102-2105 (02-359-5477,010-4820-5367) yh5367@hanmail.net

사우회만평



"원고답지속에 월간회보가 2돌이 되었습니다."

- 음악감상 (5/26)
- 하모니카 연주 (6/30)
- '난타' 공연 관람(7월)
- 음악감상(8/25)
- 국악 초창연주(9/29)
- 해외테마여행 (10월)
- 아리아 감상 (11/24)
- 모차르트비디오감상(12/29)

당기요배독모임하기로

바둑위원회(회장 변정호)는 4월 12일 낮2시부터 매주 수요모임을 경운동 사무실에서 갖기로 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0시~정오12시까지 최관원 회우(아마 5단)가 초보자를 위한 지도 대국을 갖기로 했다.

요즘 어떠세요?

金在益 회우와 茶 한잔 나누며

허허실실(虛虛實實)이란 말이 딱 어울릴 것 같다.

중고품을 헐값에 사 들여 판매하는 수익이 KBS간부 월급보다 많다고 하니 그럴 법도 하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등촌동 대로를 달리다 보면 오른편 길가에 대형 간판을 보게 된다. 이름하여 '중고품 센터'다. 가전(家電) 가구 사무실의 모든 것, 중고품...등등이라고 쓴 간판 길이가 40m나 된다. 두개 건물에 연해 있는 1층의 매장과 지하 매장은 모두 250평. 사무용 의자들은 아예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품목들은 수백가지가 되니까 다 열거 할 수는 없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린 대분류를 보면 생활 가구, 사무용 가구, 가전, 영상 등 10가지이고 이에 따른 소분류는 65가지나 됩니다. 판매 단가로는 3,000원짜리 플라스틱 의자에서부터 138만원짜리 소파까지 있습니다" 취재진을 맞이한 김재익회우의 말이다.

동창권유로 중고품 장사에 손대

김재익회우는 93년 말 KBS를 떠나 케이블 TV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기도 했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동창의 호의적인 권유로 이 분야에 손을 댔다. 여기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5년이 넘는다. "처음엔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시작했죠. 그땐 중고품을 어디서 매입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파는 것도 몰랐으니 장사가 뻥뻥이었어요?" 이리저리를 수개월, 김

회우를 좋게 본 대방동의 한 중고점사장이 그가 견적을 낸 서울역 앞 대우빌딩의 어느 사무실에 가서 매입작업을 하라는 호의적인 제의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김 회우로 하여금 견적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장사하는 법을 배우는

남녀노소 모두 중고품 고객 중고품이니까 젊은이들보다는 나이든 분의 이용이 많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했다. "젊은이들은 세탁기나 냉장고 TV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합니다. 아마 이들은 이 부근의

“검약정신 일깨워주는 방송아쉽다”



밀거름이 됐다. "이전엔 10여 만원을 받아야 할 책장을 몇 만원에 팔고 더구나 무료 배송까지 하는 어이 없는 짓을 했을 때도 있었고, 어떤 품목에선 너무 돈을 많이 받아 돈 일부를 자진해 돌려 주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김 회우는 회상했다.

김 회우는 내발산동에서 약 5년간 '서부재활용센터'를 운영하다가 점포를 확장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는 등촌동(강서구) 이곳에 중고품센터를 새로 열었다. 그는 또한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인터넷(www.joon.go.net) 판매도 병행하고 있다

직장을 얻었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일겁니다." 그러나 김 회우는 중고품 이용은 남녀 노소가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에 중고품 센터를 운영했던 사람들 중에는 큰돈을 벌어 빌딩을 사들인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김재익 회우는 나름대로 열심히 경험을 쌓아 웬만한 중고품 센터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양천구와 마포구 등지에서 정보 수집을 얻고자 찾아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했다.

'수집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직접 손질하거나 수리해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재익 회우는 강조했다.

그는 "아니운서 출신이 중고품 장사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 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이 사업의 수익은 KBS간부급 월급에 못지않습니다"라며 자랑했다

사업수익은 간부급 월급정도

김재익 회우는 광주 송파방송의 아니운서 실장을 지내다 80년 말 KBS에 들어 왔고 93년 11월 순천방송국장을 하기까지 13년간 KBS에 근무했다. 비록 긴 기간은 아니지만 김 회우는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지난 87년 심의실에 제직하던 중 여름 휴가차 고향인 충남 서천에 내려 갔다가 큰홍수를 만났었다. 밤새 집중 호우가 내려 서천 지역이 물바다가 됐는데 그 지역의 취재 기자 부재로 그곳 소식이 제대로 방송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제가 서울본사와 연락해서 이틀간 하루에도 여러 차례 피해 속보를 전했습니다. 라디오와 TV에 방송한 것이죠" 김 회우는 또 순천 방송국장 시절엔 시위 대학생들의 돌팔매질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국 건물 전체를 대형 그물망을 치는 용의 주도함을 보였었다.

김 회우는 요즘처럼 일회용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지만 환경 보전을 생각하고 알뜰 경제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물건을 아낄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KBS에서 재활용에 관련된 방송을 꾸준히 내 보내 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글:김선기/사진:이종문

방송비평

안 평 선 회우 (한국방송인회 심임부회장)

KBS의 3월은 바빴다. 3.1절, 한국방송 79년,HDTV 문화관 2편, 월화.수목 드라마, TV소설 등이 새로 시작되고, KBS스페셜, 자연다큐, 다큐멘터리 10부작 등, 3월 편성과 제작이 밀도있고 내실있게 짰 짜여서 시청자들도 놓치지 않고 찾아보기에 분주하였을 것이다. 다큐멘터리에서 동물들을 연습시켜서 재연 연출하듯 섬세하고 치밀하게 촬영한 스태프들의 노고가 감탄스러웠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지하철 여의도역 3번 출구에 일본인들이 KBS 뮤직뱅크를 방청하러 일본에서 온다는 소식은 놀라운 뉴스였다.

3/1특집

다큐 <아버지의 나라> 방송: 06. 2 28(화) PD: 조인석 / 연출:장상일 제작: (주)인디컴시네마 미국인 브루스 테일러(87) 부부가 손녀를 데리고 한국땅을 68년만에 찾아온 이야기.

이땅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살았던 고향이기도한 한국에서의 열흘간의 모습은 감각의 연속이었다.흙을 밟아다 뿌리는 효심은 시청자를 숙연케했고, 3.1만

세운동의 뜻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추적60분 조국은 우리를버렸다>

방송: 06. 3 1(수) PD: 구수환(MC) / 연출:최우철 중국에 살고있는 독립유공자 가족을 찾아서 생활환경과 국적취득, 예우절차에 대한 어려운 점 등 후손들의 항변을 듣고 보존처의 설명으로 연결.

품격있고 호화로운 3 DIVA 콘서트

광복 6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고통을 받고있는 유공자 후손들의 호소를 들어야만 하는것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후속 처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

한국방송 79년 HDV 문화관

(깃발) 방송: 06. 3 4(토) 기획: 이복영 / 원작: 하성란 극본: 황다은 / 연출: 김철규

사회 초년 청년이 직업적 긴장감에서 현실 탈출하려고 CF모델 여배우와 지상 최후의 낙원 피피섬을 찾아가는 환상에 빠졌다가 깨어나고, 허탈한 상태에서 허물을 벗어버리고 날아가고 싶은 심정을 극화한 작품으로 보았음. 완전 나체로 전신주 꼭대기에 올라가 앉는 엔딩을 프롤로그로 끌어내어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성공. 그러나 전개과정에서 주인공이 벌이는 행동들이 얼마나 공감을 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낙원을 좀더 희망적이고 현실적인 차

원에서 찾으려는 고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노래예 마지막노래>

방송: 06. 3 5(일) / 원작: 유익서 극본: 김병수 / 연출: 장기오 조선조말 양반가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소리(唱)에 빠져 지체와 영화를 버리고 몰두하지만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무대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쓰러져 간다.

세속적인 욕심으로 떠돌았으니 실패는 당연지사. 감동보다는 진행과정이 흥미 있는 인생유전 드라마였다. '남자없는 나룻배'와 '서커스'로 시대배경을 설정했고 김중엽의 마지막 노래는 절규였다

후반에 성인에서 노인으로 넘어가는 연기자 교체는 아무래도 부자연스러웠다. 대PD의 다음작품을 기대함.

KBS스페셜

<다큐멘터리 10부작 문화의 집주> 방송: 06. 3 12(토) / PD: 허진 촬영: 우성주 / 연출: 이옥정 '도시, 문화를 꿈꾸다' 上海, 아버나, 볼로니아 세도시의 문화현장 답사. 상하이 대극원을 비롯한 동방예술센터의 계획이 경외감마저 들었다.

아버나의 흡수포용의 특성, 볼로니아의 버려진 옛 건물들을 복합 문화센터로 재탄생시키는 역사정신이 큰 충격을 주

었다. 우리는 부수고 버리는데 이력이 있는데... 주위는 모두 뛰고 있는데 우리만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영국의 21세기 산업혁명>

방송: 06. 3 12(일) / 글: 최희주 해설: 김갑수 / 연출: 정현모 리버풀, 런던, 옥스퍼드시, 비틀스에서 해리포터까지 문화산업의 혁명적 부흥을 철저히 취재 분석한 리포트.특히 뮤지컬 빅 4를 기뻐한 카메론 매킨토시, 작곡가 앤드류로이드웨버와의 인터뷰, 백조를 남성으로 대체시킨 발상전환의 매튜본의 해설은 좀처럼 접할 수 없는 귀한 기회였다.

한국 오디션 현장과 최태지의 견해는 필요치 않은 삽입으로 보였고, 스토리텔링 클럽은 신기한 정보였다.

기요우대

<청춘, 불맞이, 사랑춘풍, 결혼> 방송: 06. 2 20~3 27(월) PD: 김승우 / 연출: 박성명, 김승우 지문: 김집도, 원형걸, 김진성

봄을 맞으면서 선풍과 출연자 폭이 넓어지는 등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특히 '사랑춘풍편'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진행으로 지루함 없이 호감을 주었다.

은방울, 최갑석씨, 그리고 최근에 작곡한 김영춘(홍도야-)씨의 모습도 보여준 성의있는 연출이었다. 옥화령, 문체령, 정정아 등 낯익지 않은 가수들이 좋은 실력을 발휘하여 기대를 갖게했다.

[3면에 계속]